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2월 14일

CUOMO 주지사, 연방 재난 실업 지원 신청이 2월 28일까지 연장됨을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일자리 또는 소득을 잃은 뉴요커들은 이제 연방 정부 재난 실업 지원(DUA)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13년 2월 4일에서 2013년 2월 28일로 연장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물리적 파괴도 전례가 없었는데, 그 결과로 많은 뉴요커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연방 자금은 다시 자립하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는 분들을 계속 도울 것이며 이 기한 연장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뉴요커들이 필요한 연방 재난 실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 실업 급여는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Richmond, Rockland, Queens, Suffolk, Sullivan, Ulster 또는 Westchester 카운티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실직한 사람은 누구든지 주 노동부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일반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규 실업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재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용인이든 자영업자든 이번 재난으로 인해 부상 당하여 일할 수 없는 경우.
- 이번 재난으로 인해 작업장이 손상 또는 파괴되었거나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경우.
- 이번 재난으로 인해 통근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통근하려면 영향을 입은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데, 재난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직장에 갈 수 없는 경우.
-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였지만 이번 재난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의 대부분이 이번 재난으로 영향을 입은 지역에서 나왔는데, 재난으로 인해 업소가 폐쇄되었거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영업자도 자격이 있으며 그 예로는 작은 업소 소유자, 개인 택시 운전자, 노점상, 개인 상업 어부 및 농민이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Peter M. Rive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들을 둘러 보았을 때 저는 사람들이 일하기 원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든지 도움을 받도록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장된 마감일인 2월 28일 이전에 누구든지 우리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 신청하는 청구자들은 최대 90일까지 고용 또는 자영업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된 세금 관련 서류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IRS 링크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연방 규칙상 주 노동부가 주 실업보험 프로그램에 의거 청구자의 적격성을 먼저 결정해야 연방 DUA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풍의 영향을 입었고 일자리 또는 수입을 상실한 분들이 실업 급여 또는 재난 실업 지원을 신청하려면 전화청구센터(TCC)의 1-888-209-8124번 또는 뉴욕주 바깥에 사는 경우 1-877-358-5306번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질문의 답변을 통해 자신이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201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